

제 284호 · 2014년 11월 26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사의 세계화 전략

물류정책·사업동향

1. APMT, 가나 테마항(Tema Port) 확장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예정
2. 인도 소매물류 시장에 세계의 '큰 손'들 투자 붐
3.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4. 루스콘, 복합운송 서비스 횡수 두 배 증대 계획

물류시장동향

1. 금년 9월까지 보스토치니 항만공사 순이익, 전년대비 3.3배 증가
2. 브라질, 내년 항만개발에 1억달러 투자 예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사의 세계화 전략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C.H. Robinson Worldwide Inc.)는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비자산형 3자물류 기업으로 1905년에 설립된 본사는 미국 미네소타주 에덴프레리(Eden Prairie)에 위치해 있음
- 복합 운송서비스 및 물류 솔루션 글로벌 공급업체로, 북미,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234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사 4만5천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1마케팅 문구는 소위 주문형 서비스를 강조하는 '서비스로서(as-a-Service)'이며,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서비스를 언제나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 North Dakota 지역의 Grand Forks에서 생산 및 상품 중계회사로 설립되어, 신선 식품분야 운송을 통해 사세를 확장했음
 - 2011년 3월 포춘지는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를 가장 존경 받는 물류회사로 선정했음
 - 2013년 Armstrong & Associates, Inc.에 따르면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세계 50개 3PL 순위에서 매출액 기준 5위를 기록했음
 - 2014년 미국의 식품물류 전문지 푸드로지스틱스는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를 올해 최고의 3PL 및 냉동냉장창고 전문업체로 선정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3자 물류기업 가운데 하나로, 연간 총수입은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3년 총 매출액은 128억 달러를 기록했음
 -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 해상, 항공 등 약 6만3천여개의 다양한 운송업체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음
 -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물류 솔루션이 가능하고, 자산 활용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신규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 유럽에서의 시장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럽 운송 사업은 전체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매출액의 3%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6월 터키 이스탄불 및 11월 스위스 바젤에 신규 사업소를 개설하고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통합 물류서비스 외에도 신선 농산물 소싱 및 운송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로빈슨 프레시(Robinson Fresh)'라는 신규 브랜드를 출시했음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201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26% 증가한 12.8백억 달러를 기록했음
 -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기타 판매비, 구매운송 등의 비용을 뺀 것으로 2013년 기준 약 683백만 달러를 기록했음
 - 이러한 수익성 하락 현상은 도로운송 분야의 수익성 감소와, Phoenix International사의 인수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매출액 (US 백만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5,689	6,556	7,316	8,579	7,577	9,274	10,336	11,359	12,752
영업이익	326.4	417.9	509.7	571.6	584.9	622.9	692.7	675.3	682.7
마진율	5.7%	6.37%	6.96%	6.66%	7.72%	6.72%	6.7%	6.34%	5.35%

자료 : www.chrobinson.com

- 2013년 기준 운송 분야의 매출액은 11,069.8백만 달러로 2005년부터 연평균 11.4% 증가율을 기록했음
 - 운송 분야의 순수익은 1,698백만달러에 달해, 2005년부터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기록했음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분야별 매출액 (US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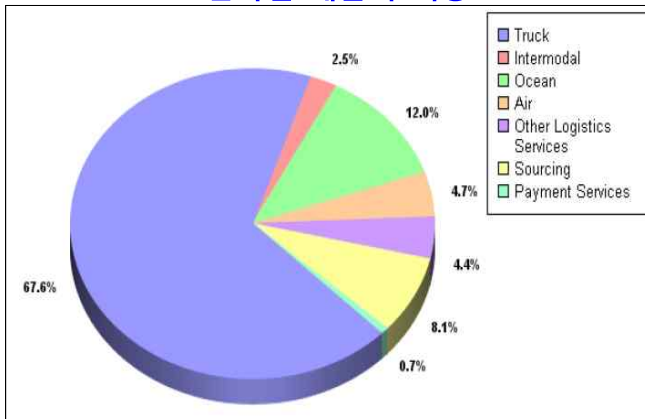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송 분야	매출액	4,655.8	5,321.5	5,971.8	7,129.6	5,976.1	7,575.7	8,740.5	9,685.4	11,069.8
	순수익	760.3	946	1,098	1,212.6	1,207.6	1,273.1	1,443.9	1,528.1	1,698.4
소싱 분야	매출액	995.2	1,192.3	1,298.9	1,398.2	1,555.3	1,643.2	1,535.5	1,620.2	1,669.1
	순수익	81.5	94.2	100.2	111.6	128.6	139.4	128.5	136.4	127
지불 서비스	매출액	38	42.4	45.5	50.8	45.8	55.5	60.3	53.5	13.2
매출액 총합계		5,689	6,556	7,316	8,579	7,577	9,274	10,336	11,359	12,752

자료 : www.chrobins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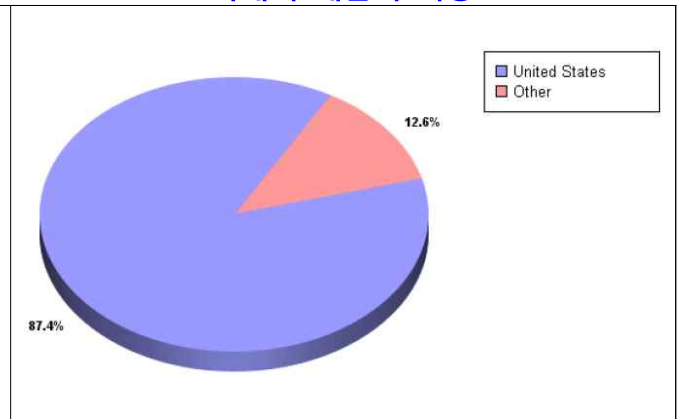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운송 분야의 수익비중이 전체 수익의 약 8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순수익의 경우 운송분야의 트럭 운송 비중이 전체의 67.6%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해상 운송 12%, 아웃소싱 8.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수익 중 미국내 수익 비중이 87.4%를 차지하며, 국외 지역의 수익 비중은 12.6%로 나타나,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수익구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운송 분야 중 트럭운송을 통한 수익이 큼

< 분야별 매출액 비중 >



< 국내외 매출액 비중 >



자료 : www.chrobinson.com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미국 내 트럭운송을 통한 수익에 집중 되어있어, 2013년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국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전략 1 : 로빈슨 프레시(Robinson Fresh) 설립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보유하고 있는 신선 식품 유통 물류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브랜드인 '로빈슨 프레시'라는 신규 브랜드 자회사를 설립했음
 - 신규 자회사 로빈슨 프레시는 전 세계 36개 농작물 재배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견야채, 채소, 멜론, 열대과일류 등의 다양한 농작물의 유통, 물류를 처리하고 있음
 - 신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신선식품 분야 전문성을 확대하고, 시장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함
- 로빈슨 프레시는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시장 적응 속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로빈슨 프레시 홈페이지(www.robinsonfresh.com) 개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식품 분야의 동향,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로빈슨 프레시는 캘리포니아 코로나(Corona) 지역에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를 착공했음
 - 신규 시설은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공급망 솔루션을 활용하며, 18만7천 평방피트 규모로 건립될 예정임

< Robinson Fresh 홈페이지 >

**전략 2 :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자체적인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olution) 기술 개발을 통해 합리적인 운송을 비롯하여, 편리한 비용 지불, 금융 및 배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의 ERP, 주문관리, 창고관리, 운송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가 가능함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공급망 최적화 노하우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급체인 솔루션을 통해 물류 아웃소싱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2013년 2월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화물의 선적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했음
 - 이를 통해 화물의 이동거리, 적재정보, 기타 주의 사항을 등을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략 3 : M&A를 통한 글로벌화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글로벌 물류 역량 강화 및 해외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M&A를 체결하고 있음
- 199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국내외 총 22개 기업과 M&A를 진행했음
 - 미국을 비롯한 북미 업체 13건, 유럽 지역 업체 5건, 아시아 지역 업체 3건, 오세아니아 지역 업체 1건으로 미국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M&A가 많이 이루어졌음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기업인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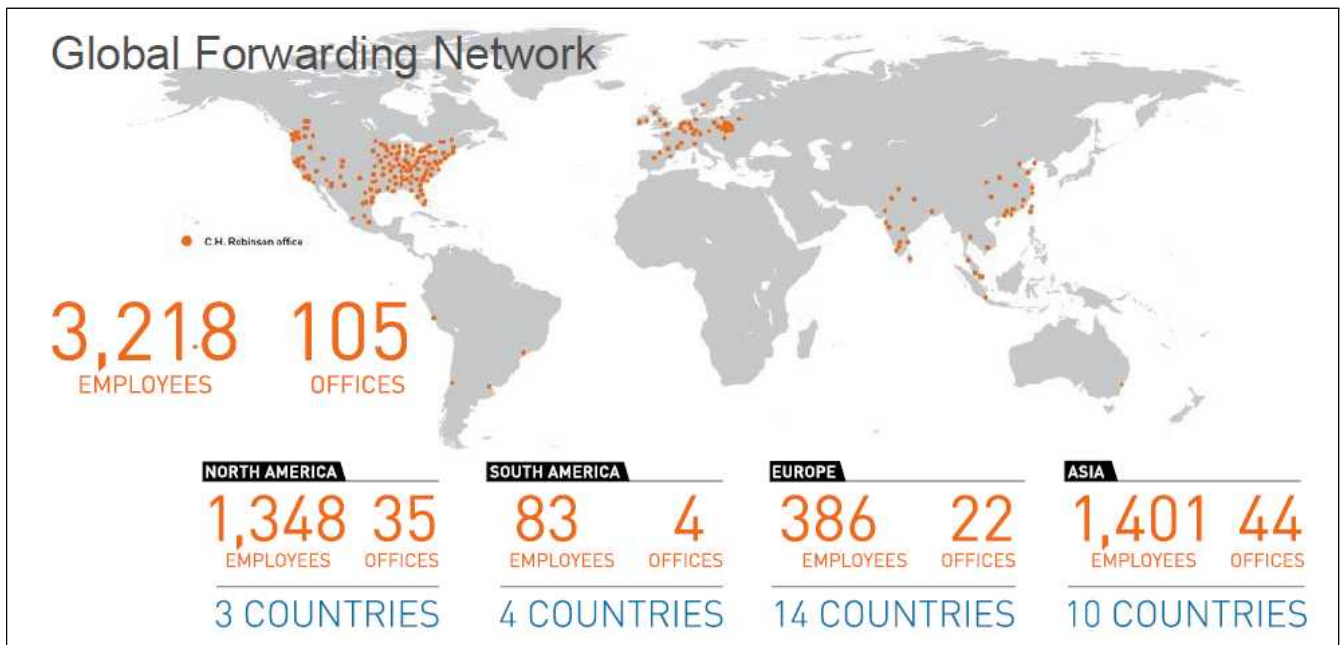
	대상기업	연도	업종	주요화물	국가
1	Apreo Logistics S.A.	2012	화물포워딩		폴란드
2	ElectronicFundsSourceLLC(EFS)	2012	아웃소싱	하이테크	미국
3	Phoenix International	2012	해상운송		미국
4	Chilltainers	2011	콜드체인		뉴질랜드
5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Inc.	2009	계약물류	소비재 / 유통	미국
6	Quality Logistics, LLC	2009	계약물류	소비재 / 유통	미국
7	Rosemont Farms Corporation, Inc.	2009	복합운송	소비재 / 유통	미국
8	Walker Logistics Overseas	2009	화물포워딩		영국
9	Transera International Holdings Ltd.	2008	화물포워딩		캐나다
10	LXSI Services	2007	소화물 특송		미국
11	Payne Lynch, and Associates, Inc.	2006	육상운송		미국
12	Triune Freight Private Ltd & Triune Logistics Pvt Ltd	2006	계약물류		인도
13	Food Source Inc., Food Source Procurement LLC, Epic Roots Inc.	2005	아웃소싱	소비재 / 유통	미국
14	Bussini Transport Srl	2005	화물포워딩		이탈리아
15	Hirdes Group Worldwide	2005	화물포워딩		독일
16	Dalian Decheng Shipping Agency Co., Ltd.	2004	화물포워딩		중국
17	Camway Transportation Corporation	2004	육상운송		미국
18	C.H. Robinson Worldwide, Inc.	2003	육상운송		홍콩
19	Frank M. Viet GmbH Internationale	2003	화물포워딩		독일
20	Smith Terminal Transportation Services	2002	육상운송		미국
21	Trans-Consolidated Inc.("TCI")	2000	육상운송		미국
22	American Backhaulers	1999	육상운송		미국

자료 : www.chrobinson.com

- 특히, 2012년 폴란드를 기반으로 하는 아페로 로지스틱스(Apreo Logistics S.A.)의 인수는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유럽 진출 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M&A로 평가받고 있음
 - 아페로 로지스틱스는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업체로 2011년 기준 총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2,00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한 기업임
 - 인수 당시 폴란드와 독일에 21개 지점 및 300여명의 직원을 보유했음
 - 아페로 로지스틱스의 합병을 통해 유럽지역 진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2008년 캐나다의 트랜세라 인터내셔널(Transera International Holdings Ltd.)의 인수는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프로젝트 화물¹⁾ 취급 경쟁력 확보 사례로 평가됨
 - 인수 당시 트랜세라 로지스틱스는 연간 매출액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젝트 운송에 특화된 기업임
 - 캐나다, 두바이, 싱가포르, 미국 등에 총 8개 네트워크를 두었으며 가스, 석유, 광산, 발전 설비 업체들의 물동량 처리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2013년 기준 전 세계 31개 국가에 진출하여 3,218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음
 - M&A 및 얼라이언스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C.H. Robinson의 글로벌 네트워크 >



자료 : investor.chrobinson.com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는 북미지역 3PL의 초강자로서, 신선식품 유통 물류 및 북미지역 물류 분야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지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단계적인 세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임
- C.H. 로빈슨 월드와이드의 세계화 전략은 M&A를 통한 네트워크 확충, 특화된 산업군으로의 진출

1) 플랜트 건설을 위한 철탑, 철구조물 또는 석유 시추를 위한 해상구조물 등 초중량화물, 보통 단위화물의 무게 100톤 이상의 화물을 육상 또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함

확장을 위해 유기적인 기반을 구축한 성장 사례로 평가됨

자료 : www.chrobinson.com, www.gscintell.com, 2014.11.25.

김세원 연구원 (☎ 02-2105-2982, ksw@kmi.re.kr)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 APMT, 가나 테마항(Tema Port) 확장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예정

- APMT가 테마항 확장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가나정부와 MOU를 체결했음
 - APMT의 테마항 투자는 손자회사인 MPS(Meridian Port Services)를 통해 이루어짐
 - APMT는 Bolloré Africa Logistics와 합작으로 Meridian Port Holdings를 설립한 후, GPHA(Ghana Ports & Harbours Authority)와 다시 합작하여 MPS를 설립했음
 - MPS는 2013년에 약 67만 TEU를 처리했으며, 2007년 설립 이후 1억 4,500만 달러를 테마항에 투자했음
- 테마항 확장 계획은 2018년까지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350만 TEU로 증대하기 위해 수심 16m의 4개 선석을 개발하고, 대형선박을 수용하기 위해 항로수심을 증설하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테마항과 수도인 아크라(Accra)를 연결하는 24.7km의 6차선 고속도로 건설도 포함됨
- 가나 항만물동량의 80% 이상이 테마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MPS는 테마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테마항 위치>



<테마항 레이아웃>



자료 : www.ghanaiantimes.com.gh, 2014.11.18. / APMT 보도자료, 2014.11.20.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인도 소매물류 시장에 세계의 '큰 손'들 투자 붐

- 인도의 소매 물류시장, 특히 e-commerce 시장에 아마존, 소프트뱅크, 미국의 해지펀드 타이거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세계적인 큰 손들이 잇달아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아마존은 아마존 인디아를 설립하고 20억 달러 투자 결정
 - * 아마존의 투자 결정은 2014년 7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에 의한 직접적인 구두 공약을 통해 이뤄짐
 - 일본의 IT 그룹 소프트뱅크는 인도의 대표적인 소매물류 업체 스냅딜(Snapdeal)에 6억2천7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음
 - * 2010년 창립된 스냅딜은 인도 최대의 e-commerce 업체로 현재 등록 고객이 2천5백만 명, 등록 업체 5만 개에 이르고 있음
 - * 소프트뱅크는 최근 상장을 통해 일약 글로벌 e-commerce 강자로 부상한 알리바바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인도에서도 비슷한 성공을 기대하고 있음
 - 인도의 또 다른 소매물류 업체 플립카트(Flipkart)도 미국계 해지펀드 타이거글로벌 매니지먼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론재벌 Naspers,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러시아 벤처회사 DST 글로벌을 비롯해 유수한 해외 투자가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 자금 조성
 - * 2007년 창립된 Flipkart는 스냅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창립 이래 매 분기마다 100%씩 고속 성장을 거듭해왔음
 - * 인도 전역에 25개 보관 창고 및 60개 배송 센터 운영(2012년 기준)
- 해외 그룹의 투자 붐에 힘입어 인도 국내의 다른 업체들도 e-commerce 및 소매 물류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음
 - 인도 최대 갑부인 Mukesh Ambani 소유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y)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채소 판매 영업을 시험적으로 개시
 - * 2014년 6월, 채소·과일 등 신선 식품의 인터넷 배달업을 뭄바이를 중심으로 개시
 - 슈퍼마켓 체인망과 의류판매점 등을 운영 중인 아디타 비를라(Aditya Birla) 그룹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시험 가동하고 있음
 - * 아디타 비를라 그룹은 2011년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해 있으며,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 영업을 통해 올리고 있음²⁾
- 인도의 e-commerce 시장에 대한 세계 굴지 업체들의 최근 투자 붐은 인도가 인터넷 사용 인구 수에서 세계 제3위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데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인터넷 사용 인구 세계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임
 - 인도의 e-commerce 시장은 중국의 1%에 불과하지만 향후 5년간 10배 이상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www.adityabirla.com 참조.

- 소매물류 전문 조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세계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연간 14.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도는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등과 더불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³⁾
- 향후 e-commerce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 투자의 성공여부는 인도 정부의 태도와 열악한 물류 인프라의 극복 여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는 최근까지 자국 소매 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글로벌 소매 물류업체의 인도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자국 소매상의 압력에 따라 진입 규제 또한 유지하고 있어 해외투자의 성공 여부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전통적으로 열악한 물류 네트워크도 인도 e-commerce 시장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 : www.businessweek.com, 201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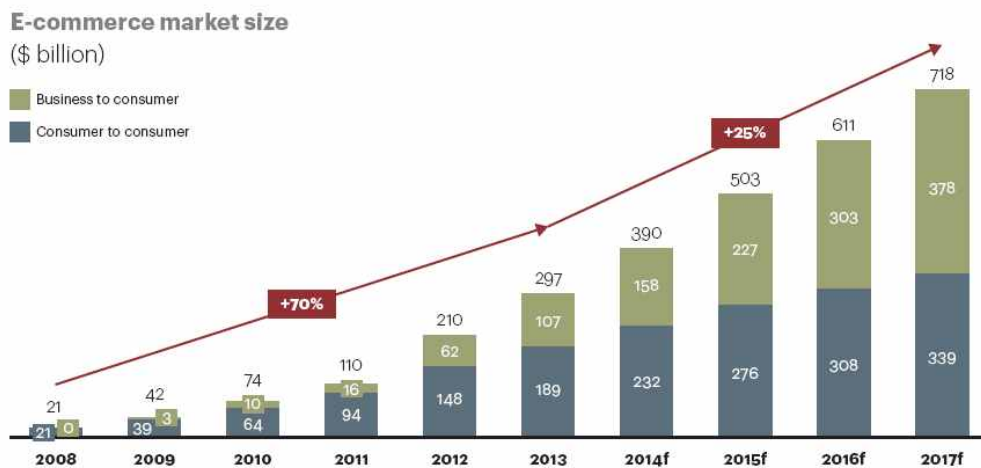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3) KMI 국제물류 위클리 제253호 이슈페이퍼(“전자 상거래의 폭발적인 시장팽창, 글로벌 소매물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참조.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 컨설턴트사 A.T. Kearney가 발표한 'China's E-Commerce Market 2014: Logistics Challeng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3,90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7,180억 달러로 급상승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 증가, 구매력 증가, 온라인 보안성 증대의 3가지 요인이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미국의 83%에 비해 낮은 46% 수준이지만, 현재 약 6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만 5,300만 명이 증가했음
 - 또한 중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은 2013년 3천 달러에서 2018년 5천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음
 - 중국에서 온라인 보안이 강화된 WEB 2.0의 확대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의 위험도 줄어들고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및 전망 >



Note: Exchange rate is 6.2 yuan per dollar. Totals may not resolve due to rounding.

Sources: iResearch, Analysys International; A.T. Kearney analysis

자료 : A.T. Kearney, *China's E-Commerce Market 2014: The Logistics Challenge*, 2014.11.

- 중국의 소비시장은 해안에 위치한 상위 10개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온라인 시장의 수는 중소도시에서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시장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물류 공급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배송 지연, 상품 파손, 분실, 불친절, 반송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물류부분에서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망 구축, 3자 물류사로의 아웃소싱, 파트너십 구축 및 기존 물류 공급업체 인수와 같은 3가지 대안을 선택하고 있음

- 보고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일관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경쟁우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증에 따라 자사 물류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전자상거래 기업의 내부 물류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기업과 3자물류 공급자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자료 : www.logasiamag.com, 2014.11.13.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루스콘, 복합운송 서비스 횡수 두 배 증대 계획

- GCS그룹의 자회사인 루스콘은 러시아 극동에 보스토치니 항에서 모스크바까지 주간고정요일 복합 운송 서비스 횡수를 두 배 증대시킬 계획임
 - 환적에 11일이 걸리는 블록 트레인 서비스는 이미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중국과 동남 아시아에서 화주들에게 인기가 있음이 증명됨
 - 서비스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강점으로 러시아 수입자들과 국제고객을 유치하여 루스콘은 러시아 전역에 있는 최종소비자에게 컨테이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54 TEU의 운송능력을 갖춘 복합운송 서비스는 하바롭스크를 경유하는 러시아 극동과 고속정기열차로 연결된 모스크바 지역 화주들을 위해 올해 초에 시작됨
 - 루스콘은 소비재와 기계 및 음식을 포함한 폭넓고 다양한 화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매주 일요일 나호드카 인근 보스토치니 항에서 기차가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있는 GCS그룹이 소유한 MANP 터미널에는 11일 후인 목요일에 도착함
 - 터미널은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할 수 있는 저장고와 창고가 결합된 완전한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 야드를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에게 트럭운송으로 배송이 가능함
 - 보스토치니부터 시작되는 복합운송 서비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을 포함한 러시아 북서쪽 부터 남쪽까지 이르는 유럽러시아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서비스를 제공함
- GCS는 러시아와 CIS의 10대 컨테이너 운송회사 중 하나로 2006년에 인수한 러시아 동남쪽 45km에 위치한 MANP터미널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
 - GCS는 장거리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내륙의 다양한 목적지에 정기적인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함
 - 복합운송 서비스는 우랄,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화주에게 빠르고 믿을만한 연계성을 제공하며 또한 이들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수출을 위한 충분한 컨테이너를 공급하고 있음
 - 금년 8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운송된 컨테이너 수는 1,100 유닛 또는 1,797 TEU임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ivew.com, 2014.11.18.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물류시장동향

□ 금년 9월까지 보스토치니 항만공사 순이익, 전년대비 3.3배 증가

- 러시아 회계기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스토치니 항만공사의 순이익이 전년대비 3.3배 증가한 133만 루블을 기록함
 - 보스토치니 항만공사의 모회사 이익은 전년대비 1.6배 증가한 367만 루블임
- 보스토치니 항만에는 두 개의 생산 - 선하적 콤플렉스가 있음
- 첫 번째는 프리모리예에서 유일하게 철도로 복합운송이 가능하고 컨베이어 시스템 설비를 갖춘 전 문석탄콤플렉스로, 전 과정의 98.9%가 자동화이며 연간 14.2백만 톤을 처리 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석탄 그랩 버킷을 이용한 하역작업에 특화된 생산 콤플렉스로 연간 3백만 톤 처리가 가능함
- 보스토치니 항만의 주요 물동량을 차지하는 석탄은 쿠즈바스(Kuzbass) 산이며 수출 물동량의 98.5%를 차지함

자료 : www.portnews.ru, 2014.11.13.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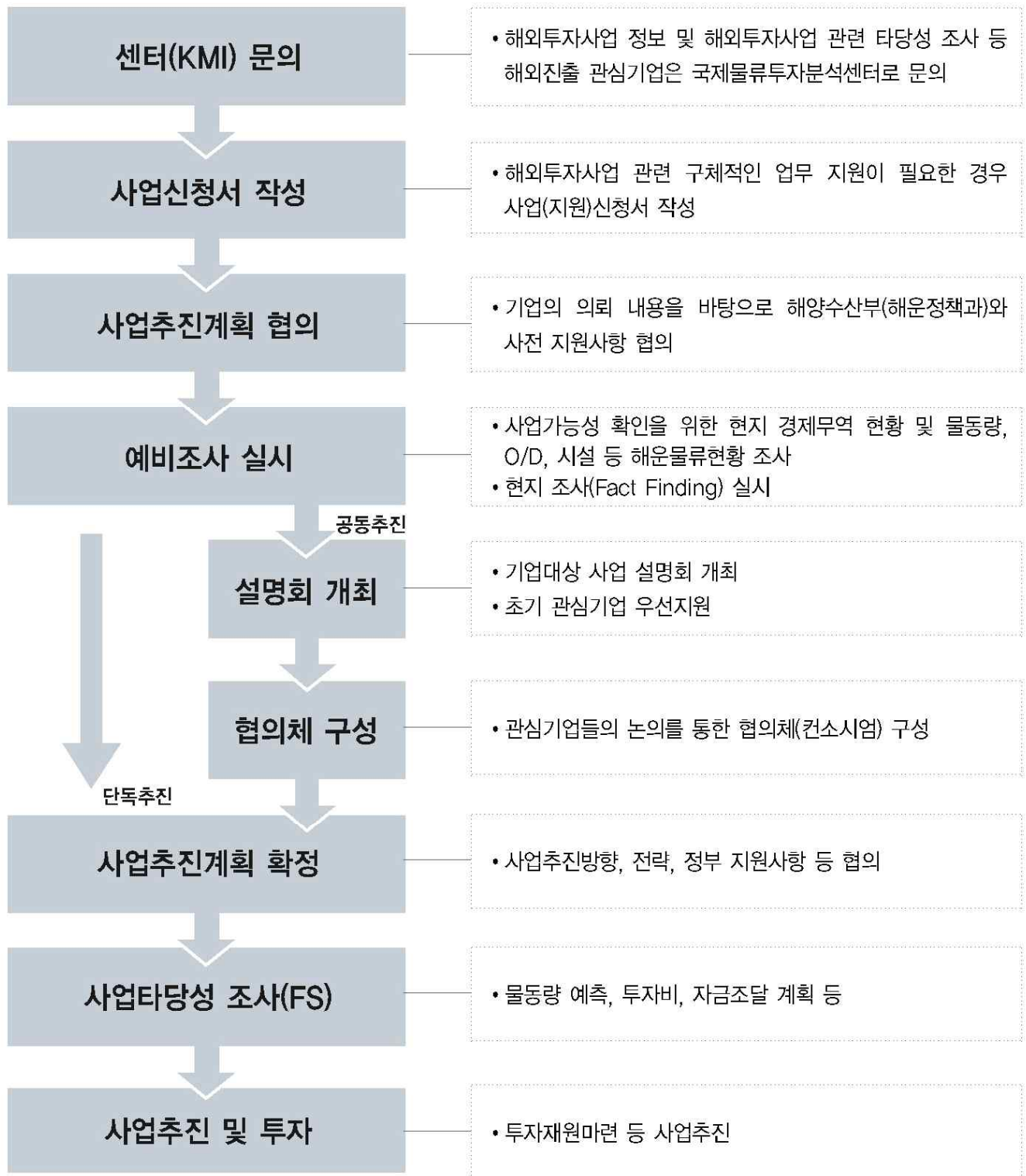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브라질, 내년 항만개발에 1억달러 투자 예정

- 브라질 동북부의 항구도시인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아홉번째 국제 물류 세미나에서 보르헤스 장관은 브라질 정부가 항만 개발관련 프로젝트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 예정이라고 발표함
- 브라질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항만 처리량을 2030년까지 매년 평균 5.7% 증가 시킬 계획임
 - 2013년 컨테이너 처리량은 12.2%로 상승했고, 처리 비용은 30% 감소함
- 보르헤스 장관은 브라질 항만이 싱가포르와 앤트워프와 비슷한 생산성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 많은 민간 투자로 인해 컨테이너 터미널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힘
- 증가하는 브라질 항만 이용률과 처리량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됨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11.17.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